정읍시, 공유토지분할 연장

내년 5월 22일까지 특례법 시행… 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

정읍시는 16일 공유토지분할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으나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적용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위원회 개최를 통해 2건의 공유토지 분할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총 22건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을 처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지불해야할 분할·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시의 공유토지 소유권 행사 지원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15일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올바른 영양관리와 식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영양교육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보건소-전북과학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협약

취약계층 임산부 · 영유아 영양교육 및 식단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15일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국민건강증진 영양사업 분야에 대한 업무 교류를 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영양사업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 협조하게 된다.

분야는 올바른 영양관리와 식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영양교육, 영유아 신체 계측 측정에 필요한 장비 지원, 영양교육에 필요한 자료공유 및 영유아 식단 공유, 다문화 가정 대상 식문화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양 기관 관계자는 "협약식을 계기로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영양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보건소는 그간 각종 영양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균형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는데 힘써왔고, 영양 위험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지원의 일환으로 매월 2회 신선한 영양 보충식품을 적극적으로 보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농기센터는 월동채소의 생육재생기를 맞아 기술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늘 · 양파 웃거름 제때에

김제농기센터, 생육재생기 관리법 지도 · 홍보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에서는 마늘, 양파 등 월동채소의 생육 재생기가 다가옴에 따라 포장관리와 더불어 웃거름을 제때에 알맞은 양을 주고, 겨울내 잦은 비,눈 등 습해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병해충 방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난지형 마늘의 웃거름은 생육재생기 이후 10일 이내에 두 번으로 나누어 주는데 한번에 주는량은 10a당 요소비료 17Kg, 염화가리 10Kg 또는 황산가리 13Kg을 뿌려준다. 만약 웃거름을 물비료를 줄 때는 요소 17kg 염화가리 10kg을 물 400~600L에 충분이 녹여서 약제 살포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에 골고루 살포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어려운 농가는 강우 예보가 있을 때 비료를 포장에 뿌려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양파 1차 웃거름은 요소비료는 시용 후 10일정도 경과해야 흡수가 가능하므로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흡수될 수 있도록 2월 중·하순경에 10a당 요소 17.4kg, 염화가리 5.2kg을 주도록 한다. 논 양파 웃거름은 2월 상순 25%, 2월 하순25%, 3월 하순 50% 3회로 나누어 사용하면 관행 2회보다 수량이 증가하고 저장 손실양이 감소된다.

고형 비료 대신 물 비료로 주면 비료의 손실도 방제되고 효과가 증진되므로 토양 수분 상태에 따라 물량을 조정 해 주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민원 핑퐁 제로화' 선언

부서간 업무떠넘기기 없도록

부안군이 2016년을 민원 핑퐁 제로화의 해로 선언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15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는 "2016년을 민원 핑퐁 제로화의 해로 선언한다"며"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민원인에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등을 달성하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전 실·과·소별 토론회 등을 통해 각 부서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고 민원 핑퐁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고 업무를 미루는 관행을 능동적인 공직문화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원 떠넘기기 없애기를 적극 실천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다양한 업무에 대한 민원 핑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 간 자율 조정에 집중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조정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 여건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 부서 간 책임을 미루는 민원 핑퐁 사례는 군민의 불편은 물론 사업 차질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토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를 미루는 관행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로컬플러스

부안군-공노조 임금협약 체결

부안군과 전국공무직 노동조합 부안지부는 2015~2016년 임금협약이 이뤄졌다.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부안군지부 이승이 지부장을 비롯하여 김원진 자치행정과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군과 공무직 노조는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수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협약안을 제시 이번 협약은 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호봉제 도입과 위험수당, 직급수당을 신설했다.

이승이 지부장은 "군에서 적극 임금협상에 임해줌으로써 원만히 체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원진 과장은 "호봉제 도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처우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회의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15일 3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및 경찰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부임한 서장님과 각 과장 소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송준상) 위원과 첫 인사를 나누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중요 치안시책 보고 및 추진방향,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행정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주원 정읍경찰서장은 "지역사회의 공감치안 구현을 위해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하겠으며, 시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읍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표장 등록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16일 만경평야, 김제평야와 같은 새 옥토를 조성하자는 새만금 명칭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제가 새만금의 본고장임을 강조하기 위해 추진 중이었던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업무표장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새만금의 명칭을 등록하여 우선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특허청에 업무표장을 출원하였고 올해 특허청으로부터 업무표장 등록을 받아 상표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시정의 종합기획 및 의회관련 업무 등 116개 지정상품 등록사항에 대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10년간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상표 이미지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고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인 2호 방조제(9.9km)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함에 따라 김제시는 새만금 지역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여 김제의 백년대계를 열어가는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고 3개 시군의 상생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